

# 페미니즘 미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

김복순\*

1. 인식론적 근본 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 미학
2. 미학의 범주로서의 특수성과 방법
  - 2.1 '차이'와 특수성, 객관성, 보편성과의 연관
  - 2.2 방법으로서의 해체와 '구성과 발견의 변증법'
3. 미적 반영 및 재현의 젠더와 미적 가치의 문제
  - 3.1 인식주체-대상의 상호매개성
  - 3.2 '보편적' 플롯의 남성중심성
4. 맺는말

---

\* 명지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국문초록
------

페미니즘 미학은 학문의 가장 강력한 상징인 '방법'에 '여성'과 '우리'가 배제되어 있어 기존의 미학이론이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인식론적 근본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 미학은 서양미학사의 기본 전제였던 개념과 방법, 즉 보편성, 객관성의 개념들 뿐 아니라 미적 반영 및 재현의 문제, 미적 가치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문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페미니즘 미학에서 보편성은 절대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으며,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상황적 보편성'이다. 상황적 보편성이란 실재에 대한 '대응' 개념이라기보다 공동체에서의 '합의' 개념이며, 객관성은 주관성이 상호매개된 '관계주의적 객관성'이다. 페미니즘 미학은 젠더 차이를 보존하면서 개별성이 상황적 보편성과 상호매개되어 특수성으로 지양되고, 관계주의적 객관성 속에 주관성이 고려되는 '구성과 발견의 변증법'이다.

페미니즘 미학의 범주로서의 특수성은 여성 젠더라는 차이를 고려하는 개별성과 '우리'를 전제로 구성되는 상황적 보편성을 맥락적으로 구성하며, 이들의 통일을 구현하여 제3의 것으로 정립시킨다.

미적 반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 개별자의 개인적 실행인 시선은 개별적이면서도 상황적 보편성을 매개한다. 개별자의 시선은 실재를 변형하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고 있다. 소위 '보편'미학에 대한 페미니즘 미학의 비판적 지점 중 하나인 '인식주체'도 다시 규명되었다. 페미니즘 미학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분리를 거부하며, 대상에게도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페미니즘 미학은 재현의 젠더에 따라 소설의 미적 가치가 달라지며, '보편' 미학이 남성 중심적 미(문)학의 이론에 입각해 소설 형식의 젠더화를 드러낸다는 점도 밝혀내었다.

페미니즘 미학의 방법론은 맥락과 관점에 의해 구성되는 해석적 실행으로서, 여성 중심주의 미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학의 길을 열어 준다.

핵심어 : 페미니즘 인식론, 상황적 보편성, 관계주의적 객관성, 재현의 젠더, 방법의 젠더, 해석적 실행, 구성과 발견의 변증법, 맥락주의

## 1. 인식론적 근본 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 미학

학문의 가장 강력한 상징은 ‘방법’이다. 방법은 ‘개념’에 토대해 자신을 구성하며, 학문적 정당성의 이름으로 ‘방법에 의한 지배’를 관철한다. 무엇이 세계에 대한 합리적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학문적 방법, 보는 방법에 대한 투쟁 관계를 형성한다.

헤겔의 미학이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모든 예술의 목적은 물질적 외양과 형태 안에 정신에 의해 산출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각과 마음과 상상에 노출된 진리와 영원함과 신성함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정신, 정체성, 지각, 진리, 재현 등의 개념은 미적 이성, 보편적 판단 등의 남성 중심적 인간 본질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sup>1)</sup> 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이 미적 합리성을 행사할 수 없으며, 미적 판단의 주체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서양미학사의 기본 전제였다.

젠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 이론, 실천에는 ‘여성’ 뿐 아니라 ‘우리’도 소거되어 있다. 기존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여성만 제거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우리’의 소거는 인간 및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모든 이론의 정합성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특정 젠더의 경험이 일반화를 낳고, 그것에 반례를 들으로써 취약해지는 이론(방법)들에 정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소거는 서양미학사의 지평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본고는 이러

1) Kimberly Hutchings, *Hegel and Feminist Philosophy*, polity, 2003, pp.17~22.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헤겔 비판으로는 Patricia Jagentowicz Mills(ed.), *Feminist Interpretation of G.W. Hegel*,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6, pp.119~176, 참조.

한 서양미학사의 기본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식론적 근본 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에서 새로운 학문적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는 정당성의 문제를 묻는 데서 출발한다.

문학과 미학이 페미니즘과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관점과 목표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또 페미니즘 미학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으며, 학문에서의 가치의 문제와 어떻게 직결되는가? 남성 중심적 학문의 기획에 가담하고 있는 미학이 해방에 과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여성의 문학적 표현형식(a woman's form of literary expression)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 통치된다는 근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인가<sup>2)</sup> 하는 점들로부터, 더 나아가 페미니즘이 소수자와 약자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타당한가, 또 페미니즘도 자유나 평등, 진리와 정의라는 다른 기본 가치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들도 담고 있다.

예술, 재현의 주체, 미적 판단의 주체 개념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은 '미'가 '이데올로기'임을 천명한다. 페미니즘 인식론은 학문의 인식내용과 해석이 결코 객관적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녀 연구자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천명한다. 문학(소설)의 개념 뿐만 아니라 방법론 역시 젠더, 계급, 문화와 결부되어 있는 발생조건들의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플라톤 이래 해체미학 이전까지 미학은 남성적 담론형식이었으며, 모든 '개념'은 '여성 젠더'로부터 분리되어 정의되어 왔다. 모든 보편화, 객관화 작업에서 '여성적'인 것(경험, 사고 등)은 자체로 의미를

---

2) Sandra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p.232.

가지기보다 항상 남성적인 것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며, 미학은 남성성과 결합하여 여성적인 것을 배제하고 남성적인 것을 이론화하고 재생산하는 작업이었다. 기존 미학은 ‘언어’를 통해, ‘방법’을 통해 하나의 성(세계)이 어떻게 다른 성(세계)을 지배하여 왔는지, 즉 ‘방법의 젠더’를 보여준다.

페미니즘 인식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미학은 전통미학의 남성 중심성을 거부한다. 근대미학에서 말하는 객관성, 보편성, 합리성, 리얼리티의 개념 등은 여성 젠더가 배제된 젠더 불균형의 개념이었다.<sup>3)</sup> 근대의 출발로 운위되는 데카르트의 이성 개념이 중립적인 객관성으로 설정되는 사유의 남성화를 포함하고 있듯이,<sup>4)</sup> 객관성, 보편성, 합리성 개념은 특정한 위치에서 보는 부분적 시각<sup>5)</sup>일 뿐이다. 따라서 인식론적 특권을 지닌, 여성의 ‘관점’을 하나의 ‘입장’으로 수용(transform the perspective of women into a standpoint)할 때 인식론적으로 새로운 ‘방법’이 가능하다.<sup>6)</sup>

인식론과 연관된 정당화 전략의 정합적인 정식화와 관련하여 롱기

3) 줄고,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소명출판, 2005), 서론 참조, pp.15~25.

4) Susan Bordo(ed.), *Feminist Interpretations of Rene Descarte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9, pp.1~348, 참조.

5) Dona Haraway, *Simians, Cyborgs, and Women*, Routledge, 1991, pp.188~196.

6) 페미니즘 미학의 인식론이, 배제된 관점으로부터 그들의 비판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부르주아 과학을 비판한 마르크스와 닮았다는 지적이 있다.

Mary Hesse, "How to Be Postmodern without Being a Feminist", *Monist* 77 (4), 1994, pp.445~461, 데이비드 헤스, 김환석 옮김, 『과학학의 이해』(당대, 2004), p.95에서 재인용.

하지만 필자가 말하는 페미니즘 미학은, 이후 전개되었지만, 여성 중심주의의 인식론이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 및 여성 중심주의를 둘 다 극복하는 인식론이다.

노는 하딩과 해러웨이의 연구 등에서 추출하여 다음의 6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경험적 적합성(adequacy), 참신성(novelty), 존재론적 이질성, 관계의 복잡성, 현재의 인간요구에 대한 적용가능성, 권력의 확산<sup>7)</sup> 등이다. 이 6가지 기준은 문화 및 권력의 배제가 나타나는 다른 차원들 즉, 계급, 인종, 국적, 성 지향성 등에도 확장될 수 있다.

페미니즘 미학이 여성 중심주의 미학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획을 갖고 있다면 위의 6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온 범주집단의 입장 안에 위치지어지는 지식을 포괄하면서도 차이를 하위규준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며, 단일요인에 의한 인과모델을 기각하고 동적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인간 모두의 해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페미니즘 미학은 미학의 기본 개념들에서 배제되어 있는 ‘여성적’인 것을 복귀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적 경험, 여성적 사고를 복귀시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그와 동시에 작용하는 개념을 구성하는 동시에, 기존의 남성/여성 대립구도에 은유되어 있던 합리성/비합리성, 이성/감정, 주체/객체 등의 개념적 이분법은 남성/여성의 상징적 이분법이라는 위계적 이항대립 구도를 해체하고 확장한다. ‘일반화된 타자’였던 여성에서 벗어나 일반적 타자이면서도 계급, 민족, 인종 등이 중층적으로 개입된 ‘구체적 타자’(the concrete other)<sup>8)</sup>의 구

7) Helen Longino, "In Search of Feminist Epistemology," *Monist* 77, pp.47-2~485, 위의 책, pp.92~103 참조.

8) ‘일반화된 타자’와 ‘구체적 타자’는 세일라 벤하비브의 개념이다. 벤하비브는 ‘중립적 주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체적 남/녀 타자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우줄라 I. 마이어, 송안정 옮김 『여성주의철학입문』(철학과 현실사, 2006), pp.271~273에서 재인용.

체적 경험을 복원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페미니즘 인식론의 과제는 학문에서의 남성 중심성 및 배제의 형식을 연구하고 담론형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페미니즘 미학은 전통 미학의 전 영역과의 대결이지만, 소위 '보편'미학으로 불리는 근대 미학의 단순한 이항대립은 아니다. 일자(the One)와 타자(the Other)라는 이분법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여성적 미학의 통속적 분리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편성, 객관성, 리얼리티 등을 개념을 새롭게 정초하여 근대미학의 남성 중심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학을 정립하는 것이다.<sup>9)</sup>

새로운 미학은 여성적 경험에 바탕한 차이를 온당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천명하는 점에서는 여성 중심주의 미학과 일치하지만, 차이를 특권화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새로운 보편성의 범주로 포괄함으로써 미학적 범주의 재구성에 입각한 새로운 보편미학의 가능성<sup>10)</sup>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페미니즘 미학은 여성 중심적 미학이 아니라 여성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새로운 미학이다. 페

9) 헤르타 나글-도체칼은 유럽의 여성주의 철학의 발달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단계는 동등성(평등)의 원칙에 방향을 맞추는 단계, 둘째는 여성적인 것의 '다름'을 긍정적 의미로 지각하는 단계, 셋째는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계이다. (Herta Nagl-Docekal: *Was ist feministische philosophie, Feministische Philosophie*, p.31, 우줄라 I, 마이어 지음, 위의 책, 서론, p.17에서 재인용).

도체칼의 단계를 페미니즘문학연구에 적용하면 첫번째 단계는 '여성'서사에 주목하면서 문학연구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두 번째 단계는 여성서사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정태주의 시학에 머문 경우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미학의 기본개념과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기존의 소위 보편미학과 페미니즘 미학의 이항대립을 지양하려는 필자의 새로운 페미니즘 미학이론 구성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0) 이는 기존의 페미니즘 서사학과 '새로운 페미니즘 서사학'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자세한 것은 좋고,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대중서사연구』 제 14호(2005.12), 1장, pp.194~198.

미니즘 미학과 페미니즘 문학연구방법론의 과제는 차이를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학의 젠더, 방법의 젠더를 규명하는 것이며, 미학과 문학이 어떤 개념과 방법론을 통해 남성적 지배권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구성되고 담론화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최근 한계에 부딪쳐 답보 상태에 놓인 페미니즘 문학 연구는 미학 이론 및 문학연구방법론의 새로운 틀의 정립을 통해서만 그 돌파가 가능하다. 현재 페미니즘 연구는 남성 중심주의 비판 및 해방이라는 애초의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미시적 연구에 머물거나 사료적 해석에 그쳐 제 몫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이' 개념은 보편성, 객관성, 특수성 등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반영과 젠더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리얼리티의 확보 여부와 전형, 전망의 문제,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의 기준 및 지배 정전(dominant canon)의 문제, 문학의 가치 등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그간의 남성 중심주의적 이론틀을 극복하는 새로운 미학이론을 정립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 2. 미학의 범주로서의 특수성과 방법

### 2.1 '차이'와 특수성, 객관성, 보편성과의 연관

모든 페미니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차이'는 보편성, 객관성, 특수성의 개념이 온당하게 규명될 때 비로소 이론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차이는 특수자인가 개별자인가, 아니면 보편자인가? 차이는 주관성 또는 객관성 중 어느 것과 연관되는가? 또 보편성 객관성과 연관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은 과연 정



당한 것인가?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나 상황이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차이의 개념 규정과 중차대한 연관을 갖는다. 또 차이의 문제는 (사이비)구체성 여부 뿐만 아니라 반영과 재현의 문제, 대안적 정전(counter canon)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문제는 페미니즘 문학 연구 뿐 아니라 철학, 미학 영역에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헤겔변증법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 미학이론을 발전시킨 루카치의 「미적 범주로서의 특수성」에 의하면, 특수성이 개별성과 보편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며, 양극단의 대립을 매개하고, 보편성과 개별성의 통일을 구현하여 자신을 제3의 것으로 정립시킨다. 예술은 이 특수성 범주의 지배를 통해서만 비로소 전형적이고 총체적인 세계를 환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특수성은 미학의 중심범주로서, 전형은 이 특수성의 구체적인 예술적 체현이다. 이러한 전형은 역사적 인식과 예술적 인식의 합일점을 이루는 미학의 범주로 자리한다.<sup>11)</sup>

루카치의 이론에 의하면 전형을 통해 객관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이 통일되고 구체적인 것과 합법칙적인 것이 통일된다. 전형 속에서 보편성이 개별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개별자 속으로 용해된다. 즉 전형성이란 개별성에 매개된 보편성, 보편성에 매개된 개별성으로 나타난다. 개별성이 보편성에 올바르게 매개될 때, 그것은 구체성을 획득한다. 개별성에 올바르게 매개된 보편성은 구체적 보편성이다. 반면 보편성이 개별성에 올바르게 매개되지 못하고 추상적 보편성을 드러낼 때 그것은 주관주의, 상대주의 또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진다.

11) 김현돈, 「미학적 범주로서의 전형성과 총체성」, 『시대와철학』, 1995, p.160.

그런데 루카치 미학에서 미적 범주로서의 특수성이 기대고 있는 보편성, 객관성의 개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성 중심적 보편성, 남성 중심적 객관성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위 '보편'미학이라 운위되었던 해체미학 이전의 근대미학에서 보편성과 객관성 개념은 여성적 경험과 현실을 배제한, 모든 개개인을 일반화시키는 남성 중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일부 페미니즘 철학은 보편성과 객관성 개념을 거부하고, 합리적 지식을 주장하기 위한 경청조건이 보편성이 아닌 부분성(partiality)이라고 주장<sup>12)</sup>하기도 한다. 해러웨이는 객관성이, 특별하고 특수한 체현(particular and specific embodiment)에 관한 것<sup>13)</sup>이라고 말한다. 또 일부 이론은 여성들이 합리적 세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의 개념도 배제한다.<sup>14)</sup>

엘리자베스 그로츠에 의하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무관한 유일한 보편성이란 없으며,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시각이 중심에 놓인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진리, 객관성 혹은 중립성이 아니라는 것이다.<sup>15)</sup>

하지만 그로츠의 지적 중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무관한 유

12) Harraway, op.cit., p.195. Harraway의 '부분성' 개념은, 아래에 언급되지만, 개별성(individuality), 보편성 및 그것의 상호 매개를 상정하지 않고 있어, '상황적 보편성'을 전제로 하는 필자의 개념과 다르다. 따라서 해러웨이의 부분성 개념에서는 '특수성'이 도출될 여지가 적다. 해러웨이는 총체화(totalization)도 거부한다. 따라서 총체화에 대해, '상대주의'와 마찬가지로, 사방에서 그리고 무소(nowhere)에서 동등하게 완전하게 볼 것을 약속하는 '신을 흉내내는 속임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주인이론(master theory)을 거부하지만, 그물망같은(webbed)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ibid, p.191.

13) ibid, p.191.

14) 리오타르, 데리다, 푸코 등 포스트 구조주의자들도 로고스 중심주의적 형이상학이 주장하는 합리성을 '상상적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15) Helen Crowley · Susan Himmelweit(ed.), *Knowing Women*, polity press, 1995, p.365.

일한 보편성이란 없'다는 함의는 옳지만,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시각이 중심에 놓인다고 보면서 중요한 것은 진리, 객관성 혹은 중립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로츠의 객관성, 보편성 개념에는 '우리'가 소거되어 있으며, 또 여성 개인의 고유한 시각만 중시되어서는 기존의 남성 중심주의가 범했던 이분법을 그대로 추수하는 여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페미니즘 미학은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페미니즘 경험론<sup>16)</sup>이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중시했으면서도 비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성이라는 '단일화'되고 '추상적'인 인식주체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험과 시각에 비견되는 여성적인 것이 배제되었다고 하면서도 페미니즘 경험론은 로크의 백지장에 대한 비유에서 보이는,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을 갖는 인식주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의 인식주체의 개념 즉, 냉철하고 중립적인 정보처리자로서의 단일화되고 추상적인 인식주체, 재현주체 개념은 허구이다.

인식주체의 개별성(개별적 경험)이 온당하게 고려되어야<sup>17)</sup> 함은 페미니즘 입장론에서 주장된다. 입장론은 주관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주관성이 객관성을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적이고 책임감

16) 하딩은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설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여성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후속 과학을 위한 세 가지 관점 즉, 페미니즘 경험론, 페미니즘 입장론,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론을 각각 페미니즘 인식론으로 인정하였다. 이 세 관점은 페미니즘라는 공통분모를 지닐 뿐 상당히 상이한 이론체계로서 학문의 세계에서 공존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이론이 더 '강한 객관성'을 확보한 '덜 나쁜 과학'인지 밝혀야 한다.

17) '중 개념으로서의 경험'과 각 개별자의 '각자성으로서의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는 줄고, 「감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제23집(2004. 7) 참조. 이 논문은 줄저,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앞의 책, pp.138~162에 재수록 되어 있다.

있는 객관성이란 주관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sup>18)</sup> 주관성이 '차이'를 담지하는 부분이라 보면서, 젠더, 계급, 인종, 민족 범주들의 차이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관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며, 하딩의 표현을 빌리면, 객관성을 향상시켜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sup>19)</sup>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이 지점에서 개별성과 보편성, 특수성의 개념들이 재정의될 수 있다. 남성 중심적 미학에서의 보편성이란 절대적이며 위계적이고, 언제나 선형적이다. 페미니즘 미학에서 보편성은 절대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으며,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상황적 보편성'이다.

흔히 보편은 구체적 현실을 떠난 추상적인 것(pseudo-universality)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적 보편'(situated universality)은 재구성이 가능하고 또 재구성되어야 한다. 보편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또 그것과의 연관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상황은 '항상' '직접적으로' 보편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보편은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이행<sup>20)</sup>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상황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보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편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sup>21)</sup>

구체적 상황에 직접 맥락적으로 닿아 있는 보편이 상황적 보편이다. 상황적 보편은, '허구적으로 정의된 개인의 이상적 합의가 아니라, 정

18) Lorraine Code, "Taking Subjectivity into Account", *Feminist Epistemologies*, Routledge, 1993, pp.15~48.

19) 이는 하딩의 용어로서, 남성 중심적 개념보다 '더 완전하고 덜 왜곡된 이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Sandre Harding, op.cit., p.26).

20) 아담 샤프, 김택원 역, 『역사와 진실』(청사, 1982), 제3부, pp.215~338 참조.

21) 졸고, 『『부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윗 글, p.195.

치와 도덕에서 자율성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신체의 구체적인 노력<sup>22)</sup>이다. 따라서 상황적 보편에는 계급, 민족, 국가, 젠더 등 각종 범주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 운동 관계도 개재되어 있다. 또 시·공간성도 확보되어 있다. 상황적 보편은 유일하고 추상적인 절대 보편을 부정한다. 항상 '지금-여기'에서 나-너의 상호매개를 통한 '우리'(공동체)의 구성이 상황적 보편이다. 이때 '우리'의 구성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를 전제로 한 '나' 중심의 상호주관적 보편성이 상황적 보편성이다.<sup>23)</sup> 루카치의 이론<sup>24)</sup>이나 코지크의 구체성 개념<sup>25)</sup>에는 여성 젠더가 소거되어 있다. 헤겔의 '지양' 개념<sup>26)</sup>에는 '우리'가 있지만 절대보편을 상정하고 있고, 하버마스의 간주관성<sup>27)</sup>에는 '우리'가 빠져 있어 진정한 보편이 될 수 없다.<sup>28)</sup>

22) 우줄라 마이어, 앞의 책, 『여성주의철학입문』, p.268에서 재인용.

23) 남성 중심적 보편성 개념을 파기하고 상황적 보편성 개념을 받아들이면 '문학 적 근대성', '미적 근대성'과 관련하여서도 보편성의 재설정이 가능해지며, 소위 전 세계적인 '보편' 장르로서의 (근대)소설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해진다. 임화는 '근대소설(임화의 용어로서는 현대소설)이 역사적 체현의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지향한다'(1946년 6월 「조선문학가동맹」 연설)고 보았는데 이때의 보편성이란 남성 중심적 보편성, 부르주아적 보편성이다. 임화의 문학사 서술은 근대의 진보적 직선적 역사관 및 그에 따른 장르개념에 입각해 있다. 임화 뿐 아니라 백철, 조연현의 문학사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법론에는 젠더도 소거되어 있다. 문학사 방법론 및 '근대'문학의 형성과 젠더화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서는 후속 논문에서 자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한편 페미니즘 시각에 입각할 경우 한국문학사의 시대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서울대 박사논문, 2004.8), pp.1~161에서 지적한 바 있다.

24) 게오르크 루카치, 이주영 외 옮김, 『미학 1~4』(미술문화, 2000~2005), pp.1~327, pp.1~312, pp.1~224, pp.1~287.

25) 카렐 코지크, 『구체성의 변증법』(거름, 1984), pp.1~207.

26) 게오르크 헤겔, 임석진 옮김, 『대논리학 2』(지학사, 1092), pp.1~335.

27)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1』(나남출판, 2006, 제1장), pp.1~227.

28) 이와 달리 정대현은 중용의 성기성물(成己成物)개념을 다원주의 시대의 대안

## 2.2 방법으로서의 해체와 '구성과 발견의 변증법'

상황적 보편성 하에서 모든 인간은 각각 개인사, 정체성, 감성적 구조를 갖는다.<sup>29)</sup> 각각의 남녀는 자신의 고유한 욕구, 재능, 능력을 가진 구체적 개별자이며, 각 개인들 간의 관계는 보완적 호혜성의 지배를 받는다. 각 개별자는 '구체적 타자'로서 상호존중의 승인이라는 기초 위에서 개별성은 보편성에 매개되는 것이다.

재정의된 주관성, 객관성, 보편성, 개별성 개념은 상호작용적이고 소통적이다. 타인을 안다는 것,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 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 생산과 실천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표본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들이 획득하는 주관성은 상호매개 되는 것이고, 사회문화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sup>30)</sup> 모든 인식적 과제들은 존재론적으로 공동체 질서와 무관할 수 없으며, 공동체를 계상할 때 다원주의는 상대주의 오류로부터 벗어난다. '우리'의 설정은 현상학적 환원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다. 상황적 인식론은 실천과 주관성의 상호구성적 결과이며, 이는 인식론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실천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

적 가치로 제시한다.(정대현, 『다원주의 시대와 대안적 가치』, 이화여대출판부, 2006, p.1476). 만약 성기와 성물을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매개적으로 이해하고, 존재론적, 윤리적 태도의 차원에서가 아닌 인식론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차이를 '우리'와 연관된 '아우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평이 열린다고 본다. 4월부터 『교수신문』에서는 성기성물이 다원주의 시대의 진정한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윤평중, 허라금, 김혜숙 등 여러 철학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9) 새로운 미학은 그간 전통미학의 타자로서 배제되었던 '감각'이 복권되어야 한다는 점과, 젠더, 계급, 인종, 연령 등 '차이'에 따라 다른 감성적 구조가 인정되고 리얼리티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 『감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의 문제』, 줄저, 앞의 책, pp.138~162 참조

30) 앨리슨 재거, 앞의 책, p.260.

따라서 페미니즘 미학의 범주로서의 특수성은 여성 젠더라는 차이<sup>31)</sup>를 고려하는 개별성과 '우리'를 전제로 구성되는 상황적 보편성을 맥락적으로 구성하며, 이들의 통일을 구현하여 제3의 것으로 정립시키는 것이다. 각 개별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론적 입장, 사회·역사·예술적 맥락을 상황적 보편성 범주로 함께 받아들인다.<sup>32)</sup>

이러한 상황적 보편성 개념은 각 개별자의 차이, 즉 주관성을 수용하는 관계주의적 객관성(*relationalist objectivity*)<sup>33)</sup> 범주를 가능하

31) 김상환은 '차이'의 개념을 증여적 차이, 자기관계적 차이, 수직적 차이, 비유기적 차이, 내재적 차이로 나누면서, 헤겔 이후의 차이의 철학은 절대적 차이를 상대화 하는, 즉 헤겔이 수직적 차이에 부여했던 목적론적이고 유기체론적인 성격이 폐지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김상환, 「현대적 차이 개념」, 『문학판』 제16호(2005, 가을호), pp.35~56.

한편 트린 민하는 '차이'를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제1세계 페미니스트들의 '분리주의 책략'도 알아차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 차이를 지닌 제3세계의 '객체'는 '우리'라는 제1세계 주체의 '대상'으로 요구될 뿐이다. 이는 주변의 주변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중심은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서 '차이'를 다시 '재타자화'하는 행위이다. Trin T. Minh-ha, *Woman Native, Other: Writing Postcolony and Feminism*, Indiana UP, 1989, pp.1~168.

32) 따라서 페미니즘 미학에서는 미의 개념과 범주도 재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학의 핵심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에서 전자는 항상 여성다움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숭고함은 20세기를 경험하면서 명백하게 남성적 함축을 갖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적 함축과 숭고함에 대한 남성적 함축은 '공정한 성차'(fair sex)를 '미적 성차'로 만든다.(앨리스 재거 외,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여성주의철학 2』, 서광사, 2005, pp.33~36).

따라서 여성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이고 대항적인 '미적 범주의 산출'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 노동소설의 숭고미(졸고, 「노동자의식의 낭만성과 비장미의 '저항의 시학」,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pp.117~150)도 재검토 할 수 있으며, 『무정』에서도 이형식의 계몽을 통해 제시되는(여성을 설득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숭고미는 친일적 신지식층 남성의 현실욕망원리와 필자가 앞서 검토한 소설 형식의 젠더화(졸고,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앞의 글, 참조)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무정』의 숭고미에 대해서는 후속논문에서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33) 해러웨이는 '체현적 객관성'(embodied o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해러웨이는 오직 '부분성'만이 객관성을 약속한다(Haraway, 앞의 책, 제9장,

게 한다. 객관성은 실재에 대한 ‘대응’ 개념이기보다 공동체에서의 ‘합의’<sup>34)</sup>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재에 대한 대응 개념이라면 여성(여성성)은 수천년 동안 실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응 개념이라 할 수 없다. 합의는 이상적, 평화적으로 도달하는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관계의 장에서 헤게모니적 쟁투를 통해 획득된다. 따라서 합의로서의 객관성 개념에는 계급, 젠더, 민족, 인종 및 각 범주 내에서의 차이들이 고스란히 개입될 수밖에 없다.<sup>35)</sup> 따라서 ‘합의’로서의 객관성 개념에는 당대의 지표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황적 보편성은 젠더, 계급, 인종 등의 ‘위치성’에서 나오며, 상황적 보편성에 대한 ‘합의’가 관계주의적 객관성을 구성한다. 상황적 보편성은 위치성에서, 관계주의적 객관성은 합의에서 나오는 것이다.<sup>36)</sup> ‘지금-여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미학은 ‘상

---

pp.183~202)고 본다는 점에서 필자와 견해가 다르다. 상대주의(relativism)와 위치(location)를 구분하고 시각(vision)을 강조하지만(위의 책, p.194), 해리 웨이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념이 소거되어 있다. 주13) 참조.

34) 김동식, 『로티, 철학과 자연의 거울』(UUP, 2002), pp.195~199. 로티는 ‘대응으로서의 객관성’과 ‘합의로서의 객관성’으로 나눈다.

35) 상황적 보편성의 한 사례로는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의 숙희를 들 수 있다. 결말부분에서 느티나무를 껴안는 것으로 끝나는 숙희의 사랑 해결법에 대해 최혜실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현저히 미숙한 것’ 또 ‘육체적 접촉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현실적 사랑이 아니다’(최혜실, 『생활과 대립구도로서의 미』, 『젊은 느티나무 · 수난시대』(동아출판사, 1995, pp.608~609)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숙희의 개별성, 즉 중산층 · 여자 · 고등학생이라는 ‘위치성’ 및 현구가 의붓오빠라는 상황과 관련된 당대의 ‘합의’에 비추어 보면 숙희의 결론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이와 같은 요지는 줄고, 『감각적 인식과 리얼리티의 문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앞의 책, p.153에서 언급한 바 있다) 상황적 보편성 및 합의로서의 객관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36)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면, 객관적 현실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아니다. 따



황적 보편성'과 '관계주의적 객관성'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미학을 구성하기에, '구성과 발견의 변증법'이라 부를 수 있다.

흔히 '우리'를 상징하면 하나의 진리에 수렴할 것을 목표하는, 해체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새로운 페미니즘 인식론은 상대주의는 거부하지만 다원주의는 긍정하며, 해체를 긍정하지만 '구성'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해체는 '방법'으로서의 해체를 말하는 것이며, 방법으로서의 해체를 기초로 한 '구성'은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해체를 상대주의라 보는 것은 인식론적 명제와 존재론적 명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인식론적 명제로서의 해체는 '방법'의 개념이다.

따라서 새로운 페미니즘 미학에서의 주체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와 조금 다르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1985)에서 백인/남성 중심적 지배체제의 이성/감정, 인간/동물, 정신/몸 등의 이분법을 무효화하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해체와 재배치에 의해 구성되는 탈 근대적 자아의 코드로 설계된, 탈 젠더적 페미니스트 주체를 '사이보그'로 형상화 한다. 사이보그는 인종, 젠더, 자본, 문화의 경계들을 위반하고 넘나드는, 유기체와 기계로 구성된(hybrid of machine and organism) '경계적 피조물'<sup>37)</sup>로서, '차이의 다중성을 긍정하고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중적 주체성은 인정되지만, '사이보그'(사이보그 이미지)를 전복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

라서 리얼리티도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37) 해러웨이는 경계적 피조물의 예로 유인원, 사이보그, 여자를 든다. 이들은 위대한 서양의 진화적 기술적 생물학적 서사에서 불안정한 자리를 차지해 온 '괴물'들이라고 본다.

ibid, p.2.

새로운 페미니즘 인식론은 '탈 젠더'를 주장하지 않는다. 젠더는 제거될 수도 없으며, 제거되어서도 안 된다. 젠더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젠더의 특성을 유지 보존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개별성을 자기의식으로 맥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각 개별자는 신체적이고 가시적이다. 각 개별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의미에서 탈 젠더란 개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해러웨이는 인식론적 명제와 존재론적 명제를 혼동하고 있다. 사이보그는 상징과 은유로서 인식론적으로 탈 젠더적 이미지일 뿐이다. 사이보그는 어떤 역사적 변형의 가능성을 구성하는, 두 개의 결합된 중심인 상상력과 물질적 실재의 응축된 이미지이다.<sup>38)</sup> 따라서 경계적이며, 해체와 재배치의 상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역사, 문화로부터 추상화된 인간이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들 간의 유사성 원리 및 차이의 원리에 기초하여 상호작용하는 아피다멘토(affidamento) 개념을 수용하여 젠더 재편성에 기여해야 한다.<sup>39)</sup>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제거를 통해서 젠더의 변화를 수행한다<sup>40)</sup>고 보지만, 이러한 방법론에 의하면 젠더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민족 등 다른 범주도 아울러 제거된다. 젠더, 계급, 민족, 인종 등이 모두 해체된 존재자가 현실세계에서는 실재하지 않는다.

젠더는 해체를 통해 '탈 젠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특성이 유지 보존된 채 차이를 그대로 가지고 각 개별성으로 존재하

38) Harraway, op.cit., pp.149~150.

39) 우줄라 마이어, 앞의 책, p.191.

40) Harraway, op.cit., p.193.

는 것이어야 한다. 각각의 개별성들이 나-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만나며, 구성하는 상황적 보편성과 매개되어 특수성으로 지양될 때 각 특수성들은 이미 젠더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객관성과 주관성이 매개된 양태로 드러난다. 롱기노의 말처럼, 차이는 하위규준이거나 '일탈 또는 실패'가 아니다. 따라서 탈 젠더, 탈 계급, 탈 민족의 유목적 주체는 인식론적으로 가능할 뿐 존재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주체는 세계자본 또는 제국주의에 포섭될 뿐이어서 대항담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억압논리가 미시화되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고 묵도되지 않는다고 하여 억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황적 보편성 속에는 당대의 이념적 지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당대의 지배적인 이념적 지향성에 매개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상대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또 끊임없는 해체의 연속과정에 빠지지도 않는다. 현실과의 연관관계를 맥락적으로 갖고, 총체성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계속 구성되는 것일 뿐, 선형적인 총체성도 가시적인 총체성도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 3. 미적 반영 및 재현의 젠더와 미적 가치의 문제

#### 3.1 인식주체-대상의 상호매개성

루카치의 반영이론은 예술을 삶이 의식화된 형식이라고 여기면서, 객관적인 현실은 하나이므로, 모든 반영이 이러한 현실을 모사한다는 것은 예술이 유물론적인 토대 위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미학적 주체를 통해 해석된 현실이다. 반영이론에 나타나는 현실은 동질적이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이다.<sup>41)</sup> 현실이란 복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에 의해 생성된, 또는 생성되고 있는 결과물이다. 실제 학문이 매개하는 '현실'의 모습은 기존 학문에서 주장되었던 것처럼 포괄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현실'의 모습이 구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한 비코(Vico) 이래, 현실 생산의 수단이 직관형식들, 기본적 이미지들, 은유적 행위라고 본 니체의 견해도 인식 형식인 '미학', '소설 형식'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은 없었다. 니체는 현실이 생산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곧 망각하는데서 '객관성'이란 외관이 생성된다고 보았다.<sup>42)</sup> 따라서 미학적인 파악능력과 인식능력은 동일하다는 사실, 미학 없이는 어떤 인식도 없다는 사실이 중요해진다. 인식이 심미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전통 형이상학이 행한 근본적인 실수이다.<sup>43)</sup>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현실이 곧 '어떤 서술 아래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서술되는 모든 것은 서술되는 방식으로 제한<sup>44)</sup>되기 때문에 현실 구성은 서술자 및 서술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서술형식에 의해 현실이 구성되는 것이며, '보는 형식'은 예술적 생산이 된다. 인간은 원칙적으로 인식형식의 전제들 안에서만 현실에 관

41) 피종호, 『해체미학』(뿌리와 이파리, 2005), pp.144~145.

42) 볼프강 벨수, 심혜련 옮김, 『미학의 경계를 넘어』(향연, 2005), p.93.

43) 위의 책, p.87.

44) 위의 책, p.96.

하여 말할 수 있으며, 항상 하나의 현실 해석으로 다른 현실 해석에 관해 말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전개되는 예술형식이다. 소설은 서술자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세계를 재배치하는 예술형식이다. 소설에서 상황, 인물, 행동 등은 개별자와 보편자를 매개해 주는 요소들인데, 그것은 언제나 서술자를 통해 재배치된다. 그런데 근대미학의 남성중심성은 이 서술자의 항목에 그다지 착목하지 못하였다. 서술자 즉, 인식주체는 이상화된 관점<sup>45)</sup>으로, 즉 당연히 '남성'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남성 중심적 시각은 시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전지적 시점'의 남성 중심성이다.<sup>46)</sup> 마치 신처럼 모든 등장인물을 조망하는 전지적 화자는 남성 젠더의 시선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인 모사 표상(Abbild-Vorstellung)과 객관주의 표상이 인식 능력의 생산적이고 심미적인 특성을 은폐하고 있다<sup>47)</sup>는 로티의 말을 이러한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보는 방식(시선)은 거리감, 정밀성, 보편성이라는 특징과, 인식에 대한 규정력과 접근성 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각 개별자의 개인적 실행인 시선은 개별적이면서도 상황적 보편성을 매개한다. 개별자의 시선은 현상들을 실재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개별자의 시선은 실재를 변형하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고 있다. 소설은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가 제시되는 장르로서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

45) 해러웨이의 용어로는 '신의 책략'이다.

46) 이에 대해서는 줄고,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대중서사연구』 제14집 (2005.12), 제2장, pp.198~212 참조.

47) 볼프강 벨슈, 앞의 책, p.96.

하는가'의 매개장치를 갖고 있다. 보는 자, 말하는 자라는 시점과 서술 문제는 판단주체 및 인식주체와 관련된 일종의 인식틀로서, 세계와 개인을 구성하고 이론화 하는 담론화 작업의 일종이다.<sup>48)</sup>

그런데 모든 지각 작용이 특수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지각 가능하게 하는 반면, 다른 것을 구성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또한 무언가를 간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보고 간과하는 행위에 인식주체, 보는 주체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개입된다. 소설의 형식은 이처럼 시선과 서술에 따라 젠더화 되고 이데올로기화 되는 과정을 형식 속에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페미니즘 미학은 '인식주체'도 다시 규명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기존의 '보편'미학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분리하에 인식주체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였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인식주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 민족, 계급, 젠더 범주에 따라 다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드러낸다. 인식주체는 대상들에 '상황적' '맥락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상 역시 인식주체에 의해 매개되어 현실을 구성하는 인자로서 수동적인 것은 아니다. 대상에게도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sup>49)</sup> 미적 반영에서 대상의 객관성 속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관계가 함축되는데, 미적 대상은 사회적 발전에 있어 현재적 상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모든 미적 형상은 그 자체 속에 이미 어떤 '객관성'을 필연적 형태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

48) 줄고, 앞의 글, p.196.

49) 해러웨이는 자연이나 성은 더 이상 문화나 젠더를 위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도 몸도 대상이나 자원이 아니라 행위자라고 하면서 대상에게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arraway, op.cit, 제9장, pp.183~202, 참조.

롤로기로서의 시각에 의해 '지금-여기'성(now-hereness)을 획득하고 대상의 객관성을 구성받는다. 그 어떤 대상도 대상을 바라보는 자의 '의식과 독립한 채'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을 바라보는 자의 시선으로부터 독립되어 규정되지 않는다.

대상은 본질을 갖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해석적 실행'을 거쳐 맥락적으로 그 의미가 발견되고 구성되는 일종의 '합의'의 결과이다. 대상에 관한 해석적 실행은 다른 해석적 실행들을 포함하여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하나의 발견적 과정을 구성하는 수많은 인자들의 맥락에 입각하여 하나의 단위로 완결될 만큼 설득력있게 구성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sup>50)51)</sup> 이 때 대상과 주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며, 대상도 행위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차이를 담지한 개별성과 상황적 보편성의 변증법적 지양 하에서 객관성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학적 반영'이라 일컬어지는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인식주체라는 연구자의 시각이 개재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자.<sup>52)</sup> 해러웨이의 위치(location), 자리매김(positioning), 위치짓기(situating)의 정치와 인식론<sup>53)</sup>도 이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50) 김주현, 「여성주의 미학과 예술작품의 존재론」(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p.263.

51)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독'(singular)이다. '개별'이나 '특수'가 '보편'에 포섭되는 '보편'의 한 사례라면, '단독'은 '개별적'이지만 '보편'에 포섭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다.

52) 이블린 폭스 켈러, 민경숙 외 옮김, 『과학과 젠더』(동문선, 1996), pp.1~231 및 오조영란·홍성욱 엮음,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창작과 비평사, 1999), pp.1~304, Sandra Harding, 앞의 책, pp.1~349 참조.

53) Harraway, op. cit. 제9장, pp.183~202.

마르크스주의 미학에서도 대상의 객관성을 말할 때 인식주체의 주관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 미학도 주관성의 능동적 요인을 언급한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성을 취하면 그 주관성이 객관성을 획득한다고 보았지만, 프롤레타리아의 객관성 자체도 모호할 뿐더러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성만으로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성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타자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주관성이 고려될 때 객관성, 보편성은 획득된다. 그리고 주관성의 능동성은 일방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타자들과의 상호 투쟁 및 연대 과정에서 구성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전통 미학의 미적 반영을 극복하는, 맥락과 관점의 해석적 실행이라는 페미니즘 미학의 방법론은 실행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 미학과 예술사가 배제했던 젠더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리하여 젠더가 만들어내는 차이들에 주목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심미적 경험의 국면들을 배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신중하게 수용한다. 따라서 페미니즘 미학의 방법론은 작품의 미적 정체성에 참여하며,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내적 관점'이기도 하다.<sup>54)</sup>

### 3.2 '보편적' 플롯의 남성중심성

재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페미니즘 미학은 기존의 미학의 연구 방법론을 재고해야 할 것을 경고한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본다는 것, 말하는 것은

54) 김주현, 앞의 글, p.262.



그 행위가 발생하는 곳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개별성을 인지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때문에 상황적, 맥락적이다. 문학에 있어서도 재현의 젠더에 따라 소설의 형식 및 미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서술자 및 초점화자의 젠더에 따라 텍스트 속에서 그것이 개입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sup>55)</sup>, 텍스트의 의미형성에 다르게 구조화 되면서 다른 미적 가치를 생산해 낸다.<sup>56)</sup>

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형성해 내고, 독자에게 쾌락을 주는 소설의 외적 형식, 플롯도 젠더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서사학은 이에 관한 의미있는 연구를 보여준다. 흔히 플롯의 ‘보편적인’ 패턴이라 일컬어졌던 ‘발단-전개-클라이맥스-파국’의 플롯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모델에 기반한 남성 중심적 모델로서, 플롯의 젠더화를 보여 준다.<sup>57)</sup>

로버트 스콜즈는 프로이트의 마스터플롯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모든 소설의 원형은 성적 행위이며, 소설의 플롯은 팽창과 수축, 긴장과 이완, 그리고 강화를 통해 클라이맥스와 완성을 향한 근본적인 남성 오르가즘의 리듬에 기초해 있다고 말한다.<sup>58)</sup>

55) 화자의 젠더에 따라 ‘보는 방식’이 다르게 담론화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줄고, 「군사주의의 젠더 전유 양상과 여성만보객-「야행」소설과 영화-」, 줄저,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앞의 책, pp.447~472를 참조. 남성 젠더의 시선의 헤게모니 속에서 소설 형식이 젠더화 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줄고, 「남성/여성 만보의 담론화 과정과 감각적 인식」, 줄고, 앞의 책, pp.473~503 및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앞의 글에서 검토하였다.

56) 전자의 예로는 김승옥의 「야행」과 「무진기행」을, 후자의 예로는 1910년대 단편소설 작가인 양건식과 이광수를 들 수 있다. 줄고, 「군사주의의 젠더 전유 양상과 여성 만보객」, 줄저, 앞의 책, pp.447~472 및 「식민지 근대 초기의 만보와 소설 형식의 젠더화」, 『현대소설연구』 제28집(2005.12), pp.29~53.

57) 플롯의 젠더화와 관련하여서는 줄고,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앞의 글 및 「식민지 근대 초기의 만보와 소설 형식의 젠더화」, 위의 글, 참조.

58) Susan Winnett, "Coming Unstrung: Women, Men, Narrative, and Principles

프로이트와 스콜즈의 플롯개념에는 남성의 욕망과 쾌락원칙이 담겨져 있을 뿐 여성의 경험과 쾌락원칙은 소거되어 있다. 이러한 플롯 개념에는 가부장제적 쾌락을 생산해 내는 플롯을 미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판단하는 인식들이 개재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플롯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수용하지 않는다.

플롯과 심리분석 패러다임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오르가즘 작동 방식은 남성과 다르다고 보고되었다. 여성의 오르가즘은 ‘지진성(seismic) 오르가즘’<sup>59)</sup>으로서, 남성들의 성 행위 코스와 달리 여성은 흥미있다고 생각되는 성 행위의 어느 부분에서나 성적으로 고조될 수 있고, 자신의 성적 흥분과 파트너의 만족을 동시에 얻어낼 수도 있으며, 관습적인 이성애적 성 행위의 기능과 대표성과는 무관한 성적 흥분과 쾌락을 법칙을 따라 자신의 쾌락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sup>60)</sup>

따라서 프로이트와 스콜즈의 위와 같은 남성 중심적 플롯개념은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sup>61)</sup> 일반화 논리일 뿐 아니라, 플롯의 다양성을 지극히 제한하여 플롯의 미적 가치도 제한한다. 오이디푸스 모델에서 벗어나는 소설은 미적 가치가 없는 플롯이라는 미적 판단을

---

of Pleasure,” ed., Mieke Bal, *Narrative Theory III*, Routledge, 2004, pp.277~278에서 재인용. 프로이트의 매스터플롯에 대한 논의는 Peter Brooks, “Freud’s Masterplot,” *ibid.*, pp.261~275, 참조.

59) Rachel Blau Duplessis, “Seismic Orgasm : Sexual Intercourse and Narrative Meaning in Mina Loy, Kathy Acker(ed.)”, *ambiguous discourse*, chapel Hill, 1996, pp.187~214.

60) Susan Winnett, “Coming Unstrung: Women, Men, Narrative, and Principles of Pleasure,” ed., Mieke Bal, *op. cit.*, pp.276~296.

61) 미적 쾌락과 젠더와의 관계에서 남/녀는 서로 다른 쾌락원칙에 지배받는다고 분석되었다. Carolyn Korsmeyer, *Gender and aesthetics*, Routledge, 2004, 제6장, pp.130~154.

과감히 수행한다. 이러한 미학적 판단 아래 최명희의 '조각이불 형식'<sup>62)</sup>의 플롯이나 오정희의 '퍼즐맞추기 형식'<sup>63)</sup>의 플롯은 보편적인 패턴에서 이탈하는 '미적 가치의 결여' 플롯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여성 중심적 플롯으로의 대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학적 패러다임 밖에 위치한 강제적이고 욕망생산적인 서사학적 동기를 포함하여, 그것이 담론화 되는 과정이 미학 형식 및 미적 가치 생산에 참여하는 젠더의 미학적 구축 과정 및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미적 반영 및 재현의 젠더 관계에서 여성의 미학적 재현 방식 및 원리들을, '차이'에서 '보편성'의 범주로 재설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4. 맺는말

본고는 모든 페미니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차이'를 미학적, 철학적, 문학적으로 온당하게 규명하여 새로운 페미니즘 미학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인식론적 근본학문으로서의 페미니즘 미학은 서양미학사의 기본 전제였던 개념과 방법, 즉 보편성, 객관성을 다시 검토하면서, 미적 반영의 문제, 재현의 젠더, 미적 가치의 문제 등에 대해 학문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

남성 중심적 미학에서의 보편성이란 절대적이며 위계적이고, 언제

62) 줄고, 「대모신의 정체성 찾기와 여성적 글쓰기」, 줄저, 앞의 책, pp.285~311, 참조.

63) 줄고, 「여성의 내면화 방식과 퍼즐맞추기 형식」, 위의 책, pp.251~284, 참조.

나 선협적이지만, 페미니즘 미학에서 보편성은 절대적이거나 선협적이지 않으며,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상황적 보편성'이다. 구체적 상황에 직접 맥락적으로 닿아 있는 보편이 상황적 보편이다. 상황적 보편은 '허구적으로 정의된 개인의 이상적 합의가 아니라, 정치와 도덕에서 자율성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신체의 구체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상황적 보편에는 계급, 민족, 국가, 젠더 등 각종 범주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 운동 관계도 개재되어 있다.

상황적 보편성 하에서 모든 인간은 각각 개인사, 정체성, 감성적 구조를 갖는다. 각각의 남녀는 자신의 고유한 욕구, 재능, 능력을 가진 구체적 개별자이며, 각 개인들 간의 관계는 보완적 호혜성의 지배를 받는다. 각 개별자는 구체적 타자로서 상호존중의 승인이라는 기초 위에서 개별성은 보편성에 매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 미학의 범주로서의 특수성은 여성 젠더라는 차이를 고려하는 개별성과 우리를 전제로 구성되는 상황적 보편성을 맥락적으로 구성하며, 이들의 통일을 구현하여 제3의 것으로 정립시키는 것이다. 각 개별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론적 입장, 사회·역사·예술적 맥락을 상황적 보편성 범주로 함께 받아들인다.

객관성이란 실재에 대한 '대응' 개념이기보다 공동체에서의 '합의' 개념이며, '지금-여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미학은 젠더, 민족, 계급 범주를 중층적으로 인식하고 '상황적 보편성'과 관계주의적 객관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미학을 구성한다. 이를 '구성과 발견의 변증법'이라 부를 수 있다.

미적 반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현실이 곧 '어떤 서술·아래의 현실'이라는 말이다. 서술되는 모든 것은 서술되는 방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 구성은 서술자 및 서술방식과 긴밀하

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서술형식에 의해 현실이 구성되는 것이며, '보는 형식'은 예술적 생산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전개되는 예술형식이다. 소설은 서술자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세계를 재배치하는 예술형식이다. 소설에서 상황, 인물, 행동 등은 개별자와 보편자를 매개해 주는 요소들인데, 그것은 언제나 서술자를 통해 재배치된다. 그런데 근대미학의 남성중심성은 이 서술자의 항목에 그다지 착목하지 못하였다. 서술자 즉, 인식주체는 당연히 '남성'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남성중심적 시각은 시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거의 고려할 수 없게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전지적 시점'의 남성 중심성으로서, 마치 신처럼 모든 등장인물을 조망하는 전지적 화자는 남성 젠더의 시선을 취하고 있다.

각 개별자의 개인적 실행인 시선은 개별적이면서도 상황적 보편성을 매개한다. 개별자의 시선은 현상들을 실재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개별자의 시선은 실재를 변형하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고 있다. 소위 '보편'미학에 대한 페미니즘 미학의 비판적 지점 중 하나인 '인식주체'도 다시 규명되었다. 기존의 '보편'미학에서는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적 분리 하에 인식주체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인식주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 민족, 계급, 젠더 범주에 따라 다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드러낸다. 대상 역시 인식주체에 의해 분석되는 수동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상에게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보편적인' 패턴이라 일컬어졌던 '발단-전개-클라이맥스-파국'의 플롯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모델에 기반한 남성 중심적 모델로서 플롯의 젠더화를 보여 주며, 남성의 욕망과 쾌락원칙이 담겨져 있을

뿐 여성의 경험과 쾌락원칙은 소거되어 있어 미적 가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판되었다.

전통 미학의 미적 반영을 극복하는, 맥락과 관점의 해석적 실행이라는 페미니즘 미학의 방법론은 실행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 미학과 예술사가 배제했던 젠더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리하여 젠더가 만들어내는 차이들에 주목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심미적 경험의 국면들을 배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신중하게 수용한다. 따라서 페미니즘 미학의 방법론은 작품의 미적 정체성에 참여하며, 미적 가치를 평가하는 '내적 관점'으로서, 여성 중심주의 미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미학의 길을 열어준다.

본 연구에서는 리얼리티의 문제는 상세하게 고찰하지 못하였다. 더 넓게는 페미니즘 진리, 윤리, 정의 등과 주체-객체의 연관성도 함께 고찰되어야 강한 정합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는 후속 연구로 넘길 수밖에 없다.

1990년 전후 강한 문제의식을 띠고 대두되었던 탈근대론이 아주 쉽게 대항적, 대안적 의미를 상실한 이유를 페미니즘 연구는 늘 성찰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연구가 정합성이 부족한 방법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료적 해석이나 미시적 분석에 치중하여 대안적 기능을 상실할 때, 그것은 담론적 효과만을 억압적으로 생산할 뿐이다. 다원주의 시대에도 실천적 대안은 끊임없이 요구된다. 새로운 페미니즘 미학 방법은 답보상태에 놓인 현 단계의 문학연구를 돌파해 줄 실천적 대안이다.

## □ 참고문헌

- 김동식, 『로티, 철학과 자연의 거울』(UUP, 2002), pp.1~249.
-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소명출판, 2005), pp.1~512.
- \_\_\_\_\_, 「식민지 근대 초기의 만보와 소설 형식의 젠더화」, 『현대소설연구』 제28집(현대소설학회, 2005.12), pp.29~53.
- \_\_\_\_\_, 「『무정』과 소설 형식의 젠더화」, 『대중서사연구』 제14집(대중서사학회, 2005.12), pp.193~238.
- 김주현, 「여성주의 미학과 예술작품의 존재론」(이화여대 박사논문, 2004), pp.1~284.
- 박의경, 「여성학적 인식론의 발전과 그 사상사적 지평」, 진재교·박의경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청어람미디어, 2004), pp.65~86.
- 신명아, 「페미니즘의 미래와 사이보그 페미니즘」, 『젠더를 말한다』(박이정, 2003), pp.155~178.
- 여성철학연구모임, 『한국여성철학』(한울아카데미, 1995), pp.1~285.
- 연효숙, 「전통인식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도전」, 『철학의 눈으로 읽는 여성』(철학과 현실사, 2001), pp.194~217.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서울대 박사논문, 2004.8), pp.1~161.
- 이미원, 「다원주의 시대 한국의 페미니즘」, 『한국사회와 다원주의』(이학사, 2003), pp.113~136.
- 이봉지, 『서사학과 페미니즘』(배재대 출판부, 2005), pp.1~255.
- 이상화, 「여성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철학연구모임, 『한국여성철학』(한울 아카데미, 1995), pp.41~78.
- 최희경, 『페미니스트 인식론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92.
-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문화과학사, 2004), pp.1~351.
- 피종호, 『해체미학』(뿌리와 이파리, 2005), pp.1~306.
-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옮김,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갈무리, 2005), pp.1~605.
- 데이비드 헤스, 김환석 옮김, 『과학학의 이해』(당대, 2004), pp.1~328.
-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여이연, 2004), pp.1~461.
- 볼프강 벨슈, 심혜련 옮김, 『미학의 경계를 넘어』(향연, 2005), pp.1~338.

- 샌드라 하딩, 이재경·박혜경 옮김, 『페미니즘과 과학』(이화여대 출판부, 2002), pp.1~341.
- 엘리슨 M. 재거,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여성주의철학』 1, 2(서광사, 2005), pp.1~569, pp.1~460.
- 우줄라 I. 마이어, 『여성주의철학입문』(철학과현실사, 2006), pp.1~350.
- 타타르키비츠, 손효주 옮김, 『미학의 기본개념사』(미술문화, 2001), pp.1~463.
- 大越愛子·志水紀代子 편, *Engendering Philosophy : Feminism and Epistemology* (昭和堂, 1999), pp.1~271.
- Belenky, Clinchy, Goldberger, Tarule, *Women's Way of Knowing*, Basic Books, 1997, pp.1~255.
- Carolyn Korsmeyer, *Gender and aesthetics*, Routledge, 2004, pp.1~195.
- Dona Harraway, *Simians, Cyborgs, and Women*, Routledge, 1991, pp.1~287.
- Helen·Crowley Susan Himmelweit(ed.), *Knowing Women*, polity press, 1995, pp.1~396.
- Kathy Mezei(ed.), *ambiguous discourse*, chapel Hill, 1996, pp.1~286.
- Kimberly Hutchings, *Hegel and Feminist Philosophy*, Polity Press, 2003, pp.1~192.
- Linda Alcoff, E. Potter(ed.), *Feminist Epistemologies*, Routledge, 1993, pp.1~309.
- Michele Le Doeuff, Kathryn Hamer and Lorraine Code, *The Sex of Knowing*, Routledge, 2003, pp.1~242.
- Peter Brooks, "Freud Master Plot," *Narrative Theory III*, Routledge, 2004, pp.261~275.
- Susan S. Lanser, "Toward a Feminist Narratology", Martin Mcquillan ed., *The Narrative Reader*, Routledge, 2000, pp.198~201.
- Susan Winnett, "Coming Unstrung: Women, Men, Narrative, and Principles of Pleasure," ed., Mieke Bal, *Narrative Theory III*, Routledge, 2004, pp.276~296.
- Sandra Harding(ed.), *Feminism and Method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p.1~193.
- \_\_\_\_\_ (ed.), *The Feminist Standpoint Theory Reader*, Routledge, 2004, pp.1~379.



Abstract

## Basic Concepts and Methods of Feminist Aesthetics

Kim, Bok-Soon

Feminist Aesthetics is not only a discipline, a new kind of epistemology but it is also a counter-movement against an established male-centered aesthetics.

It begins with a reinterpretation of concepts which have been premise of established male-centered aesthetics in the West. In the result, it leads to questioning the propositions of established male-centered aesthetics, concerning the issues of reflection and the gender of representation of aesthetics, and the issues of aesthetic values.

In feminist aesthetics, the concept of universality is a "situated universality" constituted contextually. It means an agreement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the correspondence (reflection) to the real. Therefore, feminist aesthetic is a dialectics of 'constitution and finding-outs'

The concept of speciality as category in feminist aesthetics consists of the singularity considering gender, and the situated universality premising 'we'. By unifying these two, the third theory is created.

The methodology of feminist aesthetic as an interpretational practice of contexts and standpoints, takes part in the aesthetic identity of the work, and it is a standpoint which evaluates aesthetic values in the inner respect.

**key words** : feminist epistemology, situated universality, relationalist objectivity, gender of representation, gender of methodology, hermeneutic performance, dialectics of constitution and finding-outs, contextualism.

■ 위 논문은 4월 5일 투고되어, 5월 6일 심사완료 후, 5월 1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